



2024년 7월 21일 토요일

날씨 맑음

## 싱가포르에 다녀와서 친환경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싱가포르에 다녀온 후 느꼈던 이야기들을 써보려 한다. 일단 싱가포르에는 여기저기 나무와 풀들이 진짜 많았다. 그리고 차가 그리 많지 않아서 공기가 맑고 좋았다. 그리고 식물원이 엄청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또한 백화점에도 큰 폭포와 나무들, 풀, 식물원이 있었다. 진짜 조금만 나라이지만 공기는 우리나라보다 좋고 교통편도 잘 되어 있는거 같았다. 싱가포르에는 레인트리라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크기가 진짜 크다. 잎도 풍성하게 많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나라에서 그런지 과대포장이 적었다. 그런부분이 우리나라보단 좋았다.



물도 전기가 잘 되어 있어서 두둑뭇도 깨끗했다. 또한 페트병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했다. 잘 정수된 물을 쉽게 받아먹는것이 일상인것 같았다. 싱가포르하면 막 떠오르는 마스코트가 있다. 바르 머라이언이다. 반은 물고기와 반은 사자인 신화 속의 동물인데 이 동물의 동상이 인기가 많다. 싱가포르거전 꼭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이 동상은 연마 동상과 야기 동상이 있다 그중 야기 동상은 호텔에서 버려진, 깨진 식기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했다. 생각보다 조금까진 썩지만 이런 작은 동상도 재관용하여 만들었다는 것이 진짜 이 나라는 친환경적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벌이 철저하기 때문에 길에서 담배를 피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서 거리가 엄청 깨끗했다.



쓰레기통도 곳곳에 있고 화장실도 여기저기 많아서 관광하기 좋았다. 서울보다 조금 작지만 서울보다 알찬것 같다. 그리고 거리 거리가 다 예쁘다. 여러 민족이 살아서 여러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싱가포르는 꽤 우리마가 여기에 왔는거 같 알것같은 친환경적인, 푸듯푸듯한 곳이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2024년 9월 30일 화요일

날씨 비 → 맑음.

### 텀블러 사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때마다 카페에 들린다.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거닐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물 많이 하다보니 집에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거니까 환경에 좋지 않을것 같았다.

그리고 집에는 삼아도는 텀블러가 많아서 사용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 가지고 나갈때는 좀 귀찮긴 했지만 음료를 달았을때 열음도 천천히 녹고 더 편하게 들고 다닐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포장을 하면 300원이나 할인도 해준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도 받고 열음도 늦게 녹는다. 왜냐하면 이제야 사용하는걸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나는 음료도 많이 사 먹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용기들 너무 자꾸라구 모이다 보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하는건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말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예전에 거북이 코에 빨대가 박려있는걸 본적이 있다. 그때 엄청 큰 충격이었는데..



텀블러를 사용할때 같이 사용하면 더 환경 친화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텀블러 세척할때 같이 세척하면 그렇게 귀찮은 일도 아니다.

조그만 습관을 바지면서 환경도 생각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인것 같다. 오늘 내가 하던 작은 실천이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줄지 궁금하다. 내일도 좋은 선택을 하여 환경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날씨 맑음

##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으로 환경을 지켜요

방학이다. 급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먹어야 하는데 집에 먹을게 없었다. 집 근처 마트에 가서 먹을걸 사러 나왔다. 저번에 자라에서 그물네트백이 할인하길래 샀었는데 편하게 과자를 사러 가거나 마트에서 김라면을 사갈때 등등 아주 효율성이 좋은 가방인것 같다. 오늘도 그 가방을 들고 나왔다 왔다. 김라면야랑 과자, 음료수를 샀는데 가방 덕분에 편하게 한 손으로 들고 왔다. 예전에는 봉투를 사서 넣고 왔었는데 그 봉투도 쌓이다 보니 보기에 좋지도 않고 그렇게 많아지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에코백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비닐봉지도 많이 줄어들고 하나하나 손으로 들고 갈 일도 없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환경친화적이라 좋았다. 비닐봉지가 썩어 없어지는 기간은 짧으면 20년에서 길면 1000년까지 걸린다. 하지만 에코백을 가나 사두면 진짜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닐봉지를 아낄 수 있다. 또한 비닐봉지를 사용할 때 비닐이 찢어져서 손으로 들고 가야 했던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튼튼한 에코백을 사용하면 그런일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에코백을 꼭꼭리 이용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사소한일로도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것이 좋다. 나는 오늘도 작은 실천을 통하여 환경 보호에 힘쓸 수 있음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매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지구가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꼭꼭리 노력을 할 것이다. 나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다보면 결국 큰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환경을 위한 행동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 미래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빛내주었으면 좋겠다.





김보민 고등학교 2학년

2024 년 8 월 4 일 일요일

날씨 맑음.

##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키는 실천

나는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한다. 학교를 다닐때나 친구를 만날때, 놀러 다닐때 많이 사용한다. 사실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몰랐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었다. 일단 돈을 아낄 수 있다. 일반차량 위지비 보다 버스 타는것이 돈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차비, 주유비, 수리비 등을 아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게 아니라 운전 스트레스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에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좋은건 환경 보호가 된다는 부분이다. 대중교통은 일반차량보다 탄소 배출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좋은 대중교통, 비가오나 눈이오나 안전 운전 해주시는 기사님들 덕분에 매일 안전하게 타고 다닌다. 오늘도 버스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왔다. 매일 사용하는 버스이지만 이런 것도 환경을 위한 실천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경을 위해 한걸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을 줄였다면 좋겠다. 미래에 공기는 지금보다 나빠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다 보면 미래에는 더 좋은 대기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 나는 계속 대중교통 타기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미래에 환경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며 같이 실천해 나가자!





2024 년 8 월 9 일 금요일

날씨 비

### 샤워시간 줄이기로 지구 자원을 아끼는 스마트한 선택 .

오늘은 밖이 너무 더워서 오자마자 바로 씻었다. 겨울에는 진짜 오래 샤워를 하는데 요즘에는 10분 전도지 걸라것 같다. 샤워시간을 줄이면 좋은점이 많은것 같다. 일단 에너지가 절감된다. 샤워시간을 줄이면 온수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세 또는 가스비도 아낄 수 있다. 또한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물을 절약하면 자연 스럽게 사정도 아낄 수 있게 되는것이다. 환경 보호 또한 되는데 에너지랑 물 사용량이 감소하면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되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나에게 도움되는점도 많다. 빨리 씻고 나오면 그 시간을 절약하여 본인의 시간을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하여 나를 재충전 할 수 있는것이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과도한 샤워는 피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샤워 시간을 줄이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도 큰 이득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샤워시간을 줄일것이다. 양치 할때도 물을 계속 틀어 놓는게 아니라 양치질을 사용하여 물을 아낄것이다. 샤워 할 때요 필요할때만 켜놓아야 한다. 나는 원래 샤워할때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샤워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할때만 켜서 사용해보려고 한다. 조금씩 노력해보면서 습관을 들여야겠다. 나중에는 샤워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물도 조금 쓰게 되겠지. 이렇게 나도 노력해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힘이 될지도 모른다.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멸종종 국가가 아닌 물, 자원이 많은 국가가 되었음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원이 풍부하고 대기 환경도 좋고, 지구온난화가 심하지 않은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상상 그러게 되는것은 어렵겠지만 미래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도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들을 많이 하여 지금보다 더 좋은 지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지구는 덜 아프고 좋아지는 일만 있었음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모두가 변하면 지구가 분명 변할 것이다. 다 같이 노력해보자.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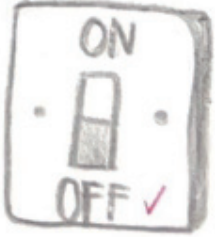
날씨 맑음

### 전기 절약은 미래를 밝히는 진짜 방법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나갈때 꼭 해야하는 것이 있다. 그런 바로 전기코드를 뽑고 전기를 끄고 가는 일이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선풍기 코드를 뽑고 플러그 전기를 끄고 나간다. 가끔은 끄고 나왔나? 하고 다시 확인하러 들어갔다 나올때도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 많은데 일단 돈 절약을 할 수 있다.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에너지 지출도 줄어든다. 전기를 절약하여 화석연료 등 에너지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보호도 된다. 전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전기 절약은 개인의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조금씩 모이다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처럼 전기절약은 나만의 이득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득이 될 수 있다. 암암 이득이 없지 않은가? 나도 전기세 아끼고 전기 절약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 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실천을 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벼룩 이 작은 일이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에는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실천들을 해 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가치있는 목표를 공유해 나가고 싶다. 우리 시구는 소중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것이다. 매일 작은 노력을 실천하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실천들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실천들이 지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날씨 맑음

### 주방 세제 절약,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킵니다.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주방 세제는 설거지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지만 그동안 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없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는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지만, 그 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계면활성제는 물에 잘 분해되지 않아서 수생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은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에 영향을 준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니 세제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근처 다이소에서 파는 설거지 비누를 사용해 보았다. 설거지 비누는 원래 액체 세제와는 달리 고체



형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설거지 비누는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환경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 처음에는 아예 거품이 잘 안났지만 수세미에 문질러주면 거품이 엄청 잘 나왔다. 그도 기쁘기 없이 뽀뽀뽀하게 잘 닦였다.

딱 내가 사용할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서 세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또한 아연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지 않아서 때문에 지구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매우 뿌듯하다.

이렇게 설거지 비누로 바꾸고 나서, 내가 매일 하는 설거지가 단순 조판일 이 아닌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또한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세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세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이 실천을 앞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나는 항상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 주방 세제뿐만 아니라, 생크림에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을 찾아 실천해 나아갈 것이다.

설거지 비누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힘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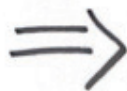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날씨 비

# 플라스틱 계속 쓰면 재가 더 빨리 망합니다!

요즘 나는 샤워를 할 때 통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비누 형태인 고체 바를 많이 사용한다. 이게 진짜 좋은 점이 플라스틱 통이 없으니까 공간 차지도 덜 해서 인테리어 관상용으로도 진짜 좋고 플라스틱 통이 없으면 환경에도 훨씬 좋다. 그리고 비누 사용하는 거처럼 머리에 조흔 문질러주면 거품도 잘 나오 양도 좋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다 이렇게 나온다. 잘 말려서 풍드러지지 않고 사용하다보면 생각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튼튼이 귀해서 써본건데 진짜 좋아서 계속 사용하고 왔다. 그리고 액체 샴푸에 비해 화학 성분이 적어 피부에 자극을 덜 준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피부에도 좋아서 정말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 같다. 싱가포르 여행 갔때도 캐리어 갖는에 부피 차지도 적고 무게도 없어서 좋아다.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것에 의미를 안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다는 매력을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들을 줄여가면서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다. 하나하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다 보면 나중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부터 노력해야 저기도 변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을 생각하고 바꾼다면 미래의 지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제목에서 말 했던 것처럼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지구가 더 빨리 망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같이 노력하면 성과가 분명히 오는 날이 분명 있을 것이다.





2024 년 8 월 15일 목요일 날씨 비

### 휴지, 멀티슈 낭비,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제 줄여야 할 때

오늘은 내가 평소에 무심코 사용했던 휴지와 멀티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매일 당연하게 사용했던 물품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비를 하고 있는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해서 내 습관을 되돌아보며 청소를 할 때나 손을 닦을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일단 휴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수건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사용하면 휴지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청소를 할 때에는 멀티슈 대신 천으로 된 행주를 사용하여 멀티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필수적으로 휴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재활용 휴지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저생지용 사용한 휴지나, 생분해성 재료로 만든 멀티슈를 선택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처음에는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환경 보호를 위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편리함을 위해 자원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 환경을 생각하며 선택이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다. 휴지와 멀티슈를 절약하는게 작은 실천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실천이 내 주변 지인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지구는 조금씩 회복 할 수 있고 미래에도 건강과 환경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일상 속에 많은 변화를 시도 해볼 것이다. 매일의 실천이 쌓여면서 지구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미루지 않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이 지속되길 바라며, 내일도 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볼것을 다짐한다.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날씨비

### 종이 낭비 이제 그만! 어떤지로 세상을 바꿔보세요!

오늘은 문득 학교 수업시간에 많은 양의 종이가 사용된다는걸 깨닫고 종이 낭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수제를 하거나, 시험지를 풀거나, 메모를 할 때도 항상 세 종이를 사용했다. 그렇지만 이 종이가 얼마나 빠르게 낭비되고 버려지는지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것 같다. 나무, 물, 에너지의 낭비를 생각 하면 더 이상 무성코 종이를 낭비해선 안된다.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나무, 신선한 공기도 제공하고 지구의 생태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를 베어내고, 물과 에너지를 소비하여 만든 종이가 한 번 사용되고 나서 바로 버려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어떤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지를 무성코 버린다. 하지만 그 어떤지로 충분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모를 한다거나, 간단한 계산, 심지어 연립 문제를 풀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나는 그들부터 어떤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프린트가 잘못된 종이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단편 약통지 등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종이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종이 한 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종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하고, 어떤지를 활용하여 나의 생활속에서 종이 낭비를 줄이는 실천을 해나가야겠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면 우리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종이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지 사용이 나 혼자만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종이 절약을 하며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고 더 많은 어떤지 활용을 격려하고 싶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면 좋겠다. 어떤지 활용 수만은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